

민간경찰활동의 성장과 미래

The growth and future of police activities

강 맹 진

남부대학교

Kang maeng-jin

Nambu Univ.

요약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민간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의 공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자신과 가족의 보호로부터 시작된 경찰활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역을 넓히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경찰활동은 공공에 의한 경우와 개인적 차원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활동을 police activity, police operation, policing이라고 하는데 공공 또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은 public police activity, 개인적 차원 혹은 사적인 차원의 경찰활동을 private police activity라고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찰활동이 있었으며 국가체제에서도 경찰국가로 불리던 시기가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찰활동 영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공경찰활동은 국가 또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민간경찰활동 역시 경찰활동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기업 등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간경찰활동이 활발한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활발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영토확장과 서부 개척, 철도의 발전 등으로 인한 동서간의 교역 증대와 치안수요의 급증이 경찰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간에 의한 경찰활동은 정부가 주관하는 치안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요구가 늘어났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발전을 거듭하던 민간경찰활동은 단순하게 개인과 재산, 시설 등을 경비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연관되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의 발전을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

되고 발전되었다. 앞으로는 첨단 시설과 장비는 물론이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관련 이론

1. 수익자부담원칙

경찰활동의 비용을 경찰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보는 개인이나 단체, 즉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은 이미 오랜 역사와 전통이기도 하다.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의 수익자부담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대륙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다. 특히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는 경찰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발전하고 활동이 더욱 구체화되어 민간 경찰활동의 확산에 기여한 바 크다. 당시에는 광산 개발로 인한 교역의 증가, 재화이동의 빈번, 인구의 이동, 유관산업의 발달 등에 민간 경찰활동이 공헌을 하였으며 당연히 경찰활동의 혜택을 입은 개인과 기업이 경비를 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지금까지도 민간 경찰활동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II. 치안서비스공동생산론

국가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은 바로 경찰활동이며 이러한 경찰활동은 공사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국가예산의 감축과 정부 차원의 경찰력 확보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 우선순위에서의 밀림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사적영역에 대한 경찰활동 수요의 증가는 치안서비스를 정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것을 최선우 교수는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이라고 하였으며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경찰활동에서도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의 조화를 통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Ⅲ. 성장과정

한국의 민간경찰활동은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 분야라고 주목을 받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경영하고 있는 경비업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금력의 한계, 높은 이직률, 업체 간 과다경쟁은 사경찰활동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다르게 우리나라 사경찰활동의 뿌리가 취약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은 일찍이 독립 전까지 보안관인 Sheriff와 Constable이 공(公) 경찰활동을 담당하였으며 민간경찰활동은 공경찰활동이 미흡한 부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단순하게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로부터 시작되었으나 특정 지역에서의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화재예방활동, 긴급구호 등의 분야에도 그 역역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1차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각국은 안전과 생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당연히 민간경찰활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경비업체와 경찰활동 분담 계약을 맺은 자치단체가 없었으며 미미하게 업무 보조 기능을 위해 민간경찰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의 경비업체에 대한 용역의뢰가 증가하였으며, 공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민간경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한 경비활동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전산분야, 회계, 차량관리, 지문채취, 출입통제, 신원조사, 공항, 항만, 학교 등 주요건물에 대한 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한 경비활동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전산분야, 회계, 차량관리, 지문채취, 출입통제, 신원조사, 공항, 항만, 학교 등 주요건물에 대한 경찰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6.25전쟁 중 미군의 군수물자 경지와 배송 등에 경비업체가 동원되는 예가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활동이 민간경찰활동을 대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산업의 발달과 기업의 성장, 대기업의 태동은 조직을 갖추고 구체화된 민간경비업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사적 영역에서 요구되던 경찰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확대가 맞물렸으며

한국에서 민간경비업체 성장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Ⅳ. 미래 예측

인간의 먹고 사는 기본적 욕구와 함께 안전에 대한 욕구의 중대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로 안전이 위협받을지 스스로 진단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에 대한 자경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있으며 가정 적절한 수단이 민간경찰활동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지만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지불은 당연한 과정이다. 눈부신 과학기술로 현재에도 첨단 보안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마치 영화와 같이 더 진보된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사경찰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하게는 인적자원을 통한 경비로부터 나아가 인공지능(AI)을 갖춘 로봇과 무인장비나 시스템 등에 의한 민간경찰활동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 문헌 ■

- [1] 이윤근 외,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서울 pp.17-40, 2017.
- [2] 인황권 외, 비교시큐리티제도론, p 333, 진영사, 서울, 2007.
- [3] 최선우, 민간경비론, 진영사, 서울, pp. 110-125. 2010.